

한전 등 6개 기관에 13억 들여 작품 설치한다는데...



나주 혁신도시 공공미술 작품 선정 '잡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미술 공동 추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에 자문 위원 형식으로 참여했던 일부 예술인들이 전문성 결여, 일방적인 작가 선정, 작품 선정 기준 모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참여 거부사를 밝혔고, 작품 심의위원들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예술위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과 지난해 11월 협약을 체결하고 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공동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예술위는 기관별 특성에 맞고

허울뿐인 스티디 그룹 운영

지역의 맥락을 살리는 공동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도시예술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공동 예술감독 2명을 선임해 예술감독들이 직접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전체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 또는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 중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모두 9개 기관이다.

예술위는 예술감독 외에도 '스티디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예술감독과 스티디 그룹은 별도의 공모 과정 없이 전체적인 작품 컨셉인 '그릇기(器)' 등에 맞는 작가들과 작품을 선정해 작품을 설치 또는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예술위는 지난해 11월 첫 결과물로 한국전파진흥원에 2개 작품을 설치했다.

하지만 스티디 그룹에 전문성이 없는 대학생 등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했고, 스티디 그룹에서 나온 의견들조차 철저히 무시된 채 예술감독이 선정해온 작

공공미술 폐해 개선 대안 ... '공동 추진 프로젝트' 문화예술위 예술감독 2명 작가 선정 기준 불분명 공모형식 도입해 2차 심사 거치는 세종시와 대조적



문예위가 추진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미술 추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 설치된 작품 '디어트리' / 최현배기자 choi@

가들의 작품이 선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스티디 그룹에 2달 이상 참여했던 광주 지역 한 예술인은 "처음에는 획일화된 미술품과 기존에 해왔던 작가들을 피하고, 스티디 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해 작가와 작품을 선정, 설치하기로 했

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티디 그룹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작가도 예술감독이 일방적으로 리스트를 뽑아 오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 선정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말까지 듣고, 좋은 취지로 참여했던 다수의 구성원들이 빠져나왔다"

며 "작가 선정, 작품 예산 책정 등도 기준 없이 애매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작품들을 심사하는 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도 "공공기관의 미술작품을 일부 사람들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도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3단계 및 공공청사 미술작품 공모'를 진행해 7곳에 470점이 참여,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일부 작품 공모는 작가들에게 스토리와 방향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종시 공공청사 미술작품 심사에 참여했던 한 전시기획자는 "1차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3~4점의 작품을 선정 한 뒤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3점의 작품을 선

'친불친'이 선정 기준 될수도

정, 2차 심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한정된 사람들이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게 되면 친불친에 의해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예술위와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관계자는 "객관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술위 관계자는 "폐해가 많았던 공공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라며 "지난 2011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모가 꼭 관련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예술감독은 "스티디 그룹 자체가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 작가의 성향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취지였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작가를 선정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야외 클래식 '광장음악회' 17일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80년 오월광주를 노래한다

민중화가 홍성담 특별 출연

야외 클래식 음악회인 광장음악회가 올 첫 공연으로 오월의 광주를 노래한다.

광장음악회는 17일 오후 7시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2014년 오월, 오월 광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주제로 58회 광장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에는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특별 출연해 80년 오월의 광주와 광주시민, 오늘날의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연은 '부용산', '술아 푸르른 술아', '아름다운 사람들', '비가', '내 영혼 바람



홍성담

디어', '울게 하소서', '아베마리아' 등 민중가요, 추모 음악을 위주로 성악과 국악공연으로 진행된다. 광장음악회 일정은 6월 음악에 세이(21일), 7월 한여름 밤의 짜릿한 연애(19일), 8월 세계 음악여행(16일), 9월 영화 속의 클래식(20일), 10월 젊은 음악가들의 축제(18일), 11월 오페라 갈라(1일). 문의 010-2038-352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상영 이벤트

광주극장 17일 나익승 씨네토크

광주극장은 다큐멘터리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상영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2014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인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은 한 세대를 품어준 스티브 워너, 맥 제거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백업 가수들이 함께

한 화려한 공연 영상과 그들이 전하는 백업 가수에 대한 진솔한 인터뷰까지 더해진 음악 다큐다.

17일 오후 3시10분 영화 상영 후에는 음악 칼럼니스트 나익승씨가 '씨네 토크'를 진행한다. 나익승은 영화에 등장한 뮤지션과 음악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연주회 '베토벤을 위하여 I'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 피아노아카데미(회장 한정숙 호남신학대 교수) 44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베토벤을 위하여 I'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환상곡 작품 77',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피아노 소나타 9번과 17번, 18번을 선사한다.

연주자는 독일 아헨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조미자,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 음악원을 졸업한 장훈화,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호남신학대 등에 출강 중인 조연미, 바이마르 국립음대 출신으로 순천대에 출강중인 송지영, 독



조미자

조연미

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출신으로 광주 여자대 음악학과 과정 책임교수로 재직중인 조선미씨 등 젊은 음악인들이다.

10월에는 '베토벤을 위하여 II'가 열린 예정이다. 문의 010-2012-8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